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탱커 해체 부진, 시황 회복 방해

금년 해체되었거나 해체용으로 매각된 탱커는 57척에 불과한데, 실제로 해체장에 입거한 선박은 30척뿐임. 아직 제재대상인 노후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 기인. 2023~2024년 신조선 인도량이 적고, 석유 수요 상승 가능성으로 황금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어 노후선 운항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선박뉴스)

China cuts crude import quotas, and tanker owners feel the chill

중국정부가 수입할당량을砍감하며 탱커시장에 약재로 작용함. 국영에너지업체인 CNOOC, PetroChina, Sinopec, Sinochem에는 해당되지 않음. (Tradewinds)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북극해 해양플랜트 정조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Equinor로부터 북극해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 FPSO 입찰 제안을 받음. 발주 규모 및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전체 발주 규모를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됨.(매일경제)

Seaspan adds six neo-panamax containerships to 39-vessel orderbook

Seaspan은 scrubber를 탑재한 15,000TEU급 neo-panamax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함. 조선사는 밝혀지지 않음. 인도기한은 2024년 1~2분기로 보도됨. (Tradewinds)

삼성중공업 '미인도' 드릴십 매각 시동걸리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미인도 드릴십 조기 매각 가능성이 있음. 현재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5척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현대로템, 5천억원 규모 K1, K1A1 전차 외주정비 사업 수주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외주정비 3건을 수주함. 계약규모는 각각 전체 매출액의 6.2%, 3.6%, 8.4%를 차지함. 계약기간은 2023년말, 2024년말, 2024년말으로 보도됨. (News1)